

##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성과 미적가치<sup>+</sup>

김 정 미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Romantic style dress

Kim, Jeong-Mee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e aesthetic values of Romantic style.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the selected objects are the Romantic styles that were prevalent from the 1830s to the 1880s.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consists of literary research, aesthetics, dress and case study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19th century dress.

Based upon the theoretical study, two results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Romantic style in 19<sup>th</sup> century dress. Firs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tyle dress are suppression of body, fixed form, volume, and ornamentation. The suppression of body is embodied by two ways. One is tightening body parts, such as the off-the-shoulder line and the corset, and the other is applying weights on body through the wearing of layers of petticoat, crinoline and bustle. The characteristic of the fixed form created the fixed silhouettes of women's dress, for example, an X-silhouette formed with wide shoulders created by big puffed sleeves, narrow waist by corset, and wide hemline of voluminous skirt and petticoats. In addition to the X-silhouette, the bustle style created fixed h-silhouette. Volume in the women's dress were visually expressed by big puffed sleeves, a huge skirt and petticoat made with gathers, pleats and flounces, crinolines and a bustle. Ornamentation was used to express an elegant and fantastic style not only by using luxurious

---

<sup>+</sup> 이 논문은 2007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PS-2007-002)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Jeong-Mee, Tel.+82-51-629-5367, Fax.+82-51-629-5354

E-mail : jmkim@pknu.ac.kr

materials in various colors and patterns, but also by applying sumptuous details and trimmings. Second, the aesthetic values of Romantic style dress are subordination, sensuality, and maternity. Women's dress of the 19<sup>th</sup> century not only restricted free movement and symbolized men's wealth and status, but also was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seducing men by exposing and accentuating the sexual body, thus becoming a symbol of fertility as a metaphor of pregnancy and uterus. These aesthetic values represented in dress incorporated the contemporary requirements of women of the time.

**Key Words** : suppression of body('몸'억압성), fixed form(정형성), volume(부피성), ornamentation(장식성), subordination(종속성), sensuality(관능성), maternity(모성성)

## 1. 서론

최근 컬렉션에서는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등 과거의 낭만주의 양식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00/01 F/W 컬렉션에서 10 S/S 컬렉션까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디엔지(D&G),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 크리스티앙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샤넬(Chanel), 엠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 블루마린(Blumarine), 발렌티노(Valentino) 등 디자이너들마다 그 방식을 달리하면서 복고풍(retro) 패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에까지 크게 유행하고 있다.

또한 낭만주의 복식양식은 국내 많은 선행연구<sup>1)</sup>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분석하거나(구태경, 1983; 윤점순, 1982),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조형예술과 복식을 비교하거나(김금자, 1991), 현대패션의 트렌드로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미적 특성과 시각적 평가를 하거나(이효진, 2003; 남형주, 2005; 조말희, 2007), 패션디자인 영감의 근원으로 서 낭만주의 양식을 제시하거나(채선미 · 유영선, 1999),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를 분석(김태희, 2007; 박신영, 2007; 신혜정, 2006; 이경아, 2003; 장현숙, 1998)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현대패션에

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현의 관점, 즉 동일성(identity)과 유사성(resemblance)의 반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패션에 있어서 복고풍의 스타일이 유행할 때마다 패션의 회귀 현상, 즉 재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합적 체계가 갖는 인식과 해석, 이해와 분류의 용이성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자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을 이전의 동일, 유사가 아닌 차이(difference)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한다. 이것은 복식양식이 변화하여 본래의 양식과는 상관없이 다양하게 창조되는 현대패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현대패션에서 변화되어 나타난 낭만주의 복식양식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각각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시기는 학자들<sup>3)</sup> 마다 그 규정이 무척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이 유행했던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로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복식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서와 논문, 인터넷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II.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 요인

### 1. 과거로의 회귀

1814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1세(Napoleon Bonaparte, 1769~1821)가 실각하여 추방당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서는 반동세력이 증강하여 전쟁과 혁명을 겪게 되자 유럽의 군주들과 지배계급은 1789년 이전의 구체제로의 복귀를 희망했으며, 1814년 9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Vienna)에서 메테르니히(Klemens Wenzel Nepomuk Lothar von Metternich, 1773~1859) 주재로 열린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제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계급제도를 다시 수립하고 특권을 부활시키며 사회를 혁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반동복고(反動復古) 세력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러시아, 독일, 영국 등의 강대국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프랑스는 루이 18세(Louis XVIII, 1755~1824)를 왕으로 내세워 구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귀족 중심사회가 재개되었고, 생활 전반에는 지난날의 기호와 양식이 소생하기 시작했다.<sup>4)</sup> 루이 18세를 중심으로 귀환한 왕족과 귀족들은 선조들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Renaissance), 바로크(Baroco), 로코코(Rococo) 시대를 동경하여 이 시대들을 영감의 근원으로 끌어 들였다. 고딕풍의 책장으로 둘러싸인 실내에서 로코코풍의 복식을 착용하고 르네상스 스타일의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을 묘사한 1830년대의 패션 프린트를 통해 낭만주의 시대는 그 이상을 현실이 아닌 과거에서 찾고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나폴레옹 3세(Napoloen III, 1808~1873)는 과거 스타일 가운데 특히 로코코 양식을 동경하여 자신의 궁을 18세기 부르봉 왕가(House of Bourbon)의 화려한 모드를 따라 루이 16세(Louis XVI, 1754~1793) 때와 같이 호화롭게 꾸미고 무도회를 여는 등 귀족적인 생활양식을 즐겼다. 복식은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넓히는 등 르네상스와 로코코 복식양식이 부활하였는데, 이것은 혁명 이전의 귀족들을 연상케하는 패션이었다. 신주영<sup>6)</sup>은 19세기 유행했던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

타일, 버슬 스타일에는 복고성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당시 여성들이 복식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의 복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역설적이지만 역사적인 복고풍의 드레스를 입음으로써 유행을 따르는 패셔너블한 여성임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다윈니즘(Darwinism)의 출현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은 당시 사회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사회적 다윈니즘으로 나아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계급과 성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다윈은 여성이 남성의 구애를 받으며 남성이 성적선택의 권리를 갖는다는 성적선택의 원리를 근거로 남성의 성별 정체감의 우월성을 합리화하였다. 즉 남성에게 주어진 성적선택의 힘은 남성의 용기, 힘, 신체의 크기를 증대하고 선택의 필수적인 요소인 높은 정신능력의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가부장제는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부양하는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남성의 성적선택의 능력을 보장해 준 반면 여성은 생존의 투쟁에서 면제받음으로서 성적선택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지적, 육체적으로 열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이처럼 다윈은 일관된 생물학적인 원리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발달해 왔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성성(Sexuality)의 기원을 설명하고 지배하는 공격적인 남성성과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여성성을 본연적인 형태로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성차에 의한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체계가 형성되었다. 남성은 문화, 정신적, 생각하기, 추상적 지식과 사고, 도시, 빛, 과학과 문명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여성은 자연, 육체적, 어머니로서의 돌보기, 감정과 미신, 시골, 어둠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sup>8)</sup>

남성은 문화적으로 획득한 이성주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적합한 성별 정체감을 획득해야 했다. 그 결과 지배하는 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가부장제도가 이용되었는데, 존 토쉬(John Tosh)<sup>9)</sup>는 남성

성과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를 가정, 직업, 그리고 남성들 간의 교제로 설명하였다. 즉 남성들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로써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여 한 가정을 확보한다. 일단 세워진 가정은 남성들의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데, 일정한 수입을 위해서 남성들은 직업이 필요하였고, 이것은 남성들의 생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에서 무급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여성이 사적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 신체의 특수성, 특히 출산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성의 배란과 출산이 여성성의 본질로 간주됨으로써 여성은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성의 일차적인 정체감으로서 모성개념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일부 분으로 강화되었다.<sup>10)</sup> 이와 같이 19세기 사회는 남성에게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부양을, 여성에게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성적 충성과 모성을 강요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이것은 억압적인 여성성의 핵심이 되었는데,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의 복종은 자연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당화되었고 여성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어떤 자리도 갖지 못하는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였다.

### 3. 부르주아(bourgeois) 계급의 대두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농업중심사회에서 공업중심사회로의 이행으로 과거 신분중심 사회에서 공업화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외된 자 간의 새로운 계급 구조를 형성하였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 권력을 쥐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당시 모든 문화적 가치를 관장하는 권력층으로 부상하였는데, 부르주아는 청교도적인 근엄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에게 존경받을만한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당시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부장 제도를 강화하여 남성을 생산영역에,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은 정치, 경제를 담당하는 남성의 영역과는 완전히 분

리되어 도덕적이고 미적이라는 문화적 영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즉 여성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식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르주아의 문화적 가치를 관장하게 되었다.<sup>11)</sup> 부르주아 계급의 문화는 자본주의적 요구를 조직적으로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형성됨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기 이상을 설정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통제되었고 모든 것이 의지와 두뇌의 냉정한 확산에 의해 지배, 조절되었다.<sup>12)</sup>

19세기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인 구조는 복식을 통해 구현되었는데, 남성들의 의복은 과거의 귀족들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고 절제된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과거 귀족들의 사치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패션에 있어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위를 선점함을 표명하였다.<sup>13)</sup> 근면하게 일하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했던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들은 귀족사회의 정교한 남성복을 포기하고 수수한 의복을 선택한 대신 아내의 신체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다. 여성들의 의복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플뤼겔(J. C. Flügel)이 ‘남성의 위대한 포기 *The Great Masculine Renunciation*’라고 언급한 이후 극도로 장식적이며 정교한 패션은 오직 여성의 세계에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베블렌(Thorstein Bunde Veblen, 1856~1929)은 『유한계급론』에서 여성을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여성패션이 남편의 부와 지위를 단적으로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4)</sup>

### 4. 기술의 발달

시민혁명과 전쟁으로 인해 산업혁명이 늦어진 프랑스에서는 1825년 자동방직기의 발명으로 면직물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직물의 사용이 점차 풍부해졌다. 또한 자카드(jacquard) 직기의 발명으로 무늬를 넣은 견직물의 기계생산과 놀랄 정도로 얇고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면직물의 생산은 로맨틱 스타일의 호화로움을 더해주었다. 1823년 벨벳(velvet) 직조기계 등과 같은 직물 기계의 발명과 염색 공장의 기능화로 인해 다채로운 색조에 따라 다양한 누앙스를 풍기는 직물을 생산하게 되어 낭만주의 복식

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5)</sup> 프랑스는 1850~1860년대 생산부문의 모든 과정에서 기계화가 실현되어 생산량이 증대되었는데, 그 중 면·모·견직물 생산의 경우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되어 다종다양한 직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던 영국은 1845~1870년에 세계 면제품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정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부드러운 면제품은 견직물처럼 애호되었다.<sup>16)</sup>

1851년 미국의 싱거(Issac Merrit Singer)는 재봉틀(sewing machine)을 발명하였는데, 재봉틀은 복식의 봉제기술에 놀랄 만한 비약을 가져와 1855년 무렵에는 기계로 대량생산된 의상이 공급되어 손으로 만든 의상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sup>17)</sup> 또한 1871년 미국에서 옷본(pattern)이 창안됨으로써 재봉틀과 함께 의복 봉제기술에 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두의 기계봉제가 가능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합성염료의 발명이다. 즉 애닐린(anilin)과 앨리자린(alizarine), 네온블루(neon blue), 그리고 메틸 오렌지(methyl orange)와 인디고 블루(indigo blue) 등 여러 가지 합성염료가 발명되어 직물염색 발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 말 샤르돈네(Chardonnnet)는 인조섬유를 발명하였으며, 1889년 파리 박람회에서 이 재료로 만든 의상이 선보였다. 1891년에는 크로스(Cross)와 베반(Bevan)에 의한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합성섬유 및 합성염료의 발명은 현대 직물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고 양과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sup>18)</sup>

요컨대 낭만주의 복식은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아래 시작되어 빅토리아시대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19세기 전반은 잦은 정권의 교체와 변화, 혁명, 전쟁으로 점철되었고 유럽사회는 1789년 이전의 구체제로의 복귀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로 새로운 부를 획득한 부르주아의 시민계급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여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는 기술적 발명과 대량생산은 많은 국가들의 기반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 다위니즘, 부르주아 계급, 기술의 변화는 낭만주의 복식양식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 III.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성과 미적가치

#### 1.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

##### 1) '몸' 억압성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특징은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skirt)를 부풀리는 것으로, 코르셋(corset)과 스커트의 버팀대가 당시 복식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코르셋은 1838년 의무화되었는데, 1830년대의 코르셋은 코드가 횡경막을 지나가도록 달려 있어 단단하고, 긴 쇠버팀대가 있었으며, 끈으로 조여졌고,<sup>19)</sup> 1844년에는 뒤몰랭(Madam de Dumoulin)에 의해 딱딱한 바스크나 고래수염을 넣지 않은 코르셋이 개발되어 1850년대에는 고래뼈 사용은 감소했으며 끈을 넣고 바느질하는 코딩(cording)과 누비는 퀴팅(quilting)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허리를 더욱 강하게 조이기 위하여 18세기 로코코 스타일의 복식에서 사용되었던 코르발레네(corps-baleiné)와 유사한 스타일의 코르셋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앞 가운데에 고래뼈로 된 '바스크 *basque*'를 댄 다음 전체적으로 고래수염을 넣고 촘촘히 박음질한 것으로, 여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한 후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물론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릴 수조차 없었다. 1870년대의 코르셋은 엉덩이를 부풀리기 위해 앞이 납작하고 뒤가 짧은 형태가 창안되었다<그림 1>.<sup>20)</sup>

이와 같이 코르셋은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흉강(rip cage)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많은 질병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절의 가능성도 증가시켰다.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으며 코르셋 없이는 허리를 지탱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해야만 했기에 코르셋은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연약해진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은 빅토리아시대의 상류층의 여자 아이들에게는 3~4세부터 입혀졌으며,<sup>21)</sup> 여자 기숙학교에서 사감이 월요일 아침에 잠그고 토요일에 풀어준 결과 15살에 58cm인

허리는 2년 후 33cm로 줄었다는 1866년 영국의 한 잡지기록이 있다.<sup>22)</sup> 당시의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야기되는 불편함, 신체변형, 부작용, 영구적 장애를 견뎌내야만 했다<sup>23)</sup><그림 2>. 코르셋과 함께 몸을 구속한 요소는 당시 유행했던 어깨를 드러낸 오프-더-숄더 라인(off-the-shoulder line)인데, 이것은 팔의 윗부분을 고정시켜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였다.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는 1840년대 이후 점점 커지는 스커트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는데, 길고 풍성한 스커트 실루엣을 위해 치마 속에 여러 겹의 페티코트(petticoat)를 착용하였다. 심지어는 7개에 이르는 페티코트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여성들이 입었던 의복의 무게는 심지어 4.5kg~13.5kg에 달하기도 했는데, 여성들에게 권장되었던 것은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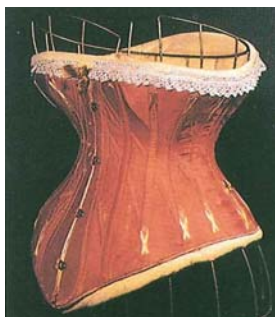
1850년대 크리놀린은 그 지름이 착용자의 키만큼 커져서 옆에 앉을 수도 없었고 출입문이 좁아 여성은 돌이 나란히 방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들어가서도 한 방에 겨우 두 명의 여자들이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 시 보통의 출구로는 크리놀린 스커트를 입은 당황한 여성들은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점인데, 공공장소에서 대화재로 인한 몰살은 참혹했다고 한다.<sup>25)</sup> 코르셋과 거대한 크기의 크리놀린을 입고 벗는 것은 많은 시간과 하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그림 3><sup>26)</sup>, 복식은

거대한 부피와 무게로 인해 여성의 몸과 활동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심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유행한 버슬스타일은 버슬패드(pad)를 엉덩이 부위에 달거나 금속틀로 치마 버팀대를 만들어 속치마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뒤쪽으로 돌출된 버슬과 몸에 꼭 끼는 스커트는 너무 불편해 앉는 일도 계단을 오르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보행을 극도로 방해하였다. 버슬은 스타일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의복의 무게 또한 증가시켰다<그림 4><sup>27)</sup>. 또한 페티코트와 더스트 러플(dust ruffle), 드레스(dress)의 복잡한 주름과 과다한 러플 레이스(lace) 장식 등으로 무게는 더욱 증가하여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1880년대의 의복개조운동의 목적 중 하나는 여성복의 무게를 감소시키자는 것이었는데, 한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의 무게는 무려 18kg에 달했다고 한다.<sup>28)</sup>

## 2) 정형성

로맨틱 스타일의 특징은 두 삼각형의 정점이 허리에서 결합되는 모양과 얇은 X자형 실루엣이다. 즉, 네크라인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어깨를 드러내고 소매의 윗부분을 부풀리고 허리는 가늘게 조였으며, 직선의 실루엣을 가졌던 고전적인 스커트를 버팀대를 사용하여 종 모양으로 부풀린 형태였다. 어깨를



<그림 1>  
1879-1880년대 코르셋  
-서양복식문화사,  
p.331.



<그림 2> 코르셋에 의해 변형된 몸  
-서양복식문화사,  
p.347.



<그림 3> 거대한 크리놀린  
-20,000 Years of Fashion, p.376.



<그림 4> 1870년대 버슬  
-Everyday Dress 1650-1900, p.134.

넓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슴과 어깨를 드러낸 데콜테(decollete)된 상의에 앞 중심이 연결된 폭넓은 버사칼라(bertha collar)나 펠레린(pelerine)을 달기도 하였다. 이러한 칼라들은 레이스, 고운 흰 리넨, 문양이 있는 모슬린(mousseline), 문양이 있는 고운 울, 수놓인 오간디(organdy)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가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sup>29)</sup> 소매는 지고(gigots sleeve), 임베실(imbecile sleeve), 레그-오브-머튼(leg-of-mutton sleeve)로 부풀려졌으며 상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커트 또한 벨 모양으로 부풀렸다<그림 5><sup>30)</sup>. 이러한 로맨틱 스타일에 대해 부셰(Francois Boucher)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구상화(具象化)하고 천사나 나비를 닮으려고 한다고 하였다.<sup>31)</sup>

로맨틱 스타일은 1850년대 들어서면서 과장되었던 상체는 점차 작아지는 대신 스커트만을 한없이 부풀린 크리놀린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크리놀린의 폭이 가장 넓었던 것은 1860년경인데, 이때의 크리놀린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큰 벌집 모양으로, 허리는 가늘고 바디스(bodice)는 몸에 꼭 맞아 실루엣은 저변이 넓은 삼각형이었다. 1864년 크리놀린은 <그림 6>과 같이 전면에서 다소 수직이 되는 반면 뒤쪽이 튀어 나온 타원형으로 변화되었고, 1868년에는 스커트의 중심이 완전히 후반신으로 옮겨져 크리놀린은 뒤쪽 반만이 되었다.<sup>32)</sup>

페인(Blanche Payne)에 의하면 1870년대는 세 가지 실루엣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대한 부피의 스커트자락이 버슬 버팀대에 의해 받쳐진 하이 버슬 high bustle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1874년에 등장한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간 몸에 꼭 끼는 '퀴래스 바디스 cuirass bodice' 스타일이며<그림 7><sup>33)</sup>, 세 번째는 1877년에 나타난 스커트의 폭이 좁아져 무릎 부분이 꼭 끼는 극단적인 스타일이다. 1881년경에는 스커트의 엉덩이 부분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1884년에는 허리 뒤부터 수평으로 무려 20~60cm까지 돌출된 '워터폴 백 waterfall back' 스타일이 나타났다.<그림 8><sup>34)</sup>. 이처럼 버슬 스타일은 앞에서 볼 때는 스커트가 다리에 일자형으로 밀착되는 형을 이룬 반면 뒷모습은 스커트가 버슬에 의해 돌출되고 길게 늘어져서 h실루엣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 3) 부피성

1830년대 로맨틱 스타일을 다른 시대와 구분 짓는 독특한 특징은 풍성하게 부풀려진 소매에서 비롯되는데, 친목회(La Belle Assemblée) 1830년 8월호에서는 아침에 마차를 탈 때 입는 의상들에 세 가지 보편적인 형태의 소매가 있다고 전한다. 첫째는 팔꿈치까지는 풍성하지만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꼭 끼는 것이고, 둘째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풍성하고



<그림 5> 1831-1833년  
X-실루엣  
-서양복식사, p.246.



<그림 6> 1864년  
X-실루엣  
-복식과 패션, p.197.



<그림 7> 1875년  
h-실루엣  
-복식의 역사, p.600.



<그림 8> 1884년  
h-실루엣  
-Fashion, p.245.

손목에 꼭 끼는 커프스(cuffs)가 달린 것이며, 셋째는 맨 위를 풍성하게 하여 퍼프(puff)를 넣은 것이다.<sup>35)</sup> 풍성하게 부풀려진 소매는 옷감의 필요량이나 정확한 형태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거대한 부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버팀대<그림 9>가 사용되었다. 그 중 오리털로 채운 쿠션이 가장 많았는데, 철사나 등나무 줄기를 사용하여 랜턴(lantern)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드레스에 봉제하지 않는 경우의 지지대는 코르셋의 어깨끈에 묶어 사용하였다.<sup>36)</sup>

18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스커트는 직물의 전체 폭으로 재단하여 여유분은 개더나 플리츠로써 허리둘레에 골고루 나누었는데, 이것은 스커트를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 또한 넓은 플라운스를 달아줌으로써 스커트의 부피를 강조하였다<그림 10>.

스커트의 부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크리놀린은 리넨과 말털을 넣어 짠 두껍고 잘 꺾여 지지 않는 검정색, 흰색, 갈색 등의 뽀뽀한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1856년에는 금속의 골조로만 조립되기도 하였다<그림 11>.<sup>37)</sup> 영국에서는 강철대신 딱딱한 고무 테(hoop)를 끼워 만든 것이 발명되었고, 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철사 테를 리본으로 엮어 만들어 아래 위로 수축이 가능한 형태가 고안되었다.<sup>38)</sup> 여성들은 이러한 크리놀린을 착용한 후에 한 두 개의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된 페티코트 스커

트를 겹쳐 입어 스커트를 더욱 부풀렸다.

크리놀린의 구성법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버슬은 말총을 넣어 만든 패드로 속치마의 엉덩이 부분에만 달아서 입다가 착용에 좀 더 용이한 철제 틀로 만든 버슬을 속치마 위에 입어 착용하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sup>39)</sup> <그림 12>는 1870-80년대의 말털로 만든 버슬, 과학적인 버슬, 배골을 자극할 위험이 없는 것을 보증하는 철사를 엮어 만든 건강버슬, 철의 고리를 축으로 한 '랑그트리(langtry)식 버슬'인데, 랑그트리식 버슬은 착용한 여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서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편리한 것이었다.<sup>40)</sup> 이러한 버슬 버팀대는 드레이프와 과도한 러플 레이스 장식과 함께 스커트의 부피를 강조하였다.

#### 4) 장식성

로맨틱 스타일의 복식은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우아하고 환상적인 스타일로서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는 실루엣에 화려한 색상과 고급 소재가 사용되었고 아름다운 프릴(frill), 레이스, 리본(ribbon), 플라운스(flounce) 등이 장식되어 있다.<sup>41)</sup> 드레스에 사용된 소재는 매우 다양했는데, 1830년대에는 여름용으로 오건디(organdy), 모슬린(mousseline), 타라탄(tarlatan), 날염된 케임브릭(cambric) 등이 사용되었고, 겨울용



<그림 9> 1830년대 소매패드  
-Fashion, p.199.



<그림 10> 1845년 플라운스  
-20,000 Years of Fashion, p.359.



<그림 11> 1858년 크리놀린  
-20,000 Years of Fashion, p.375.



<그림 12> 1870-80년대 버슬  
-복식과 패션, p.211.



으로 플라드(foulard), 캐시미어(cashmere), 포드스와, 새틴, 나폴리제 그로그렐(gros-grain) 등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옅은 황갈색, 담황색, 옅은 다갈색, 하늘색, 연보라색, 밝은 황록색, 양배추색, 자주색, 초코렛색 등 밝은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1840년대에는 붉은색, 퓨서(fuchsia)색, 자주색, 밝은 파란색, 곤색, 어두운 녹색과 회색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태피터(taffeta)들은 줄무늬와 바둑무늬의 아름다운 색상조화로 제작되었다.<sup>42)</sup> 또한 화려한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금사로 짠 얇은 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로맨틱 스타일의 복식은 디테일(detail)과 트리밍(trimming)이 과잉 장식되었는데 <그림 13>, 버사 칼라와 펠레린(pelerine)은 레이스, 고운 흰 리넨(linen), 문양이 있는 모슬린, 문양이 있는 고운 울, 수놓인 오간디(organdy) 등으로 만들어져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넓어진 스커트 밑단은 버크럼(buckram)을 대고 러플, 플라운스, 플레어(flare), 꽃, 리본, 브레이드(braid), 레이스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sup>43)</sup> 이러한 장식들은 스모킹(smocking), 셔링(shirring), 루시(ruche), 턱(tuck), 플리츠(pleats), 오버랩핑(over wrapping), 아플리케(applique), 자수 등의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은 1860년대 초 퍼킨(Perkin)에 의한 애닐린 염료의 출현으로 담홍색과 같은 적자주색 계열들을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유제니(Eugénie, 1826~1920) 황후의 레이스에 대한 애호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사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레이스는 우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복식뿐만 아니라 소매, 모자, 케이프, 손수건, 양산 등에 까지 풍부하게 사용되었는데,<sup>44)</sup> 유제니는 당시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그녀의 패션은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그림 14>.<sup>45)</sup>

1850년대와 1860년대의 직물들은 앙 디스포지시옹(en disposition) 즉 복식에서 일정한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디자인들로 직조하거나 날염되었는데, 투명한 오건디와 무거운 실크를 사용하였다. 여름용으로는 디머티(dimity), 론(lawn), 챔브레이(chambray), 킵(gingham), 친츠(chintz), 피케(pique), 일렌드

제 포플린, 냉킨(nankeen) 등이 사용되었고, 겨울용으로는 캐시미어, 메리노(merino), 웰리스, 플라넬, 플라드, 태피터, 브로케이드(brocade), 벨벳, 모헤어, 바라타 등이 사용되었다. 이브닝 웨어에는 고즈, 모슬린, 바레쥬(barege), 그레너딘(grenadine), 툴르 등이 사용되었다.<sup>46)</sup> 1850년대 크리놀린과 함께 착용된 페티코트는 붉은색, 검정색, 노란색, 회색에 무늬가 있는 리넨, 실크, 울, 카튼 등을 사용하여.<sup>47)</sup> 스커트를 부풀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역할까지 하였다. 또한 드레스의 스커트의 밑단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러플, 태슬, 브레이드, 리본, 레이스, 자수 등으로 장식하여 귀족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재봉틀의 출현으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졌다.<sup>48)</sup> <그림 15>는 아이보리색상의 태피터를 사용하여 1864년 만들어진 이브닝 드레스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꽃과 나뭇잎 문양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바디스, 허리, 스커트의 뒷부분에는 셔닐(chenille)로 된 프린지 fringe)를 첨가하여 장식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870년대 스커트의 구성방법은 언더스커트(under skirt)가 있고, 그 위에 종류와 색이 다른 여러 가지 옷감으로 서로 조화시키거나 강하게 대비시키면서 허리에서 밑단까지 직선, 곡선, 사선으로 드레이프 시켰다. 드레이프의 가장자리는 태슬(tassel)이나 주름잡은 레이스, 색이 다른 테이프 등으로 장식하여 에이프런(apron)을 두른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스커트 뒤에 91~183cm의 트레인을 늘어뜨리고 언더스커트는 스모킹, 셔링을 하거나 플라운스를 총총이 붙여서 장식하였다.<sup>49)</sup> 소재로는 여름용으로 행커치프 리본과 아일랜드 자수장식이 사용되었고, 겨울용으로 시셀레(ciselé) 문양이 있는 질고 화려한 색상의 아름다운 벨벳, 가벼운 새틴, 빼어난 파유(faille), 브로케이드 등이 사용되었다.<sup>50)</sup> <그림 16>은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가 1874년 만든 버슬스타일의 드레스이다. 바디스와 스커트는 보라색 파유를 사용하고 네크라인과 커프스에는 연한 색상의 레이스와 진한 색상의 벨벳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오버스커트(over skirt)는 가장자리를 진한 색상의 프린지로 장식하여 에이프런을 두른 것과 같이



<그림 13>  
과잉장식  
-서양복식문화사,  
p.305.



<그림 14> 파스텔 색상의 새틴과  
레이스 장식  
-서양의 복식문화, p.286.



<그림 15> 1864년  
자수와 프린지  
-Fashion, p.236.



<그림 16> 1874년  
다른 색상과 소재  
-Fashion, p.240.

드레이프시켰다. 언더스커트는 세 겹의 플라운스를 벨벳과 교차하게 붙였다. 이것은 색상과 소재를 달리하여 장식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2.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미적가치

### 1) 종속성

1840년 출판된 사교계의 차림에 관한 책에 의하면, 여성은 온순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우수에 젖고, 가냘픈 몸이 지배적이고, 건강하고 활발한 것은 천한 것으로 여겼다. 입술연지와 볼연지는 일절 사용하지 않게 되고, 병약한 창백함을 동경하였다. 유행을 쫓는 젊은 여성들은 초를 마시기도 했다.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에게 요구한 일은 첫째는 정숙한 주부가 될 것, 둘째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아내가 전혀 일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높음을 나타냈다.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복식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여성들은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sup>51)</sup>

당시 유행했던 어깨를 드러낸 오프-더-숄더 라인은 팔의 윗부분을 고정시켜 팔을 자유자재로 들어 올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은 노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이다.<sup>52)</sup> 또한 1830년대부터 발전되어 온 종 모양의 스커트는 여러 겹의 페티

코트와 크리놀린에 의해 지지 될 수 있는 부피까지 커져 여성의 활동을 방해하였는데, 이를 계승하는 버슬 스타일 역시 뒤쪽으로 돌출된 버슬과 몸에 너무 꼭 끼는 스커트는 여성의 활동에 극심한 제약이 되었다. 여러 겹의 페티코트, 크리놀린, 버슬은 스타일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의복의 무게 또한 증가시켰는데,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여성의 신체활동을 숙녀답지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대한 부피와 무거운 의복은 구속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53)</sup> 베블렌은 이러한 여성을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여성은 남성에 대한 종속적 존재이면서 과시적 소비와 여가의 능력을 암시하는 '대리적 유탄의 지표'라고 하였다.<sup>54)</sup>

여성성은 복식에 있어서 구속과 해방, 은폐와 노출로 표현되어 왔다. 김정선과 최현숙은 크리놀린과 버슬이 정적이고 부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성의 핵심인 '수동성'과 '종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흔히 복식에 있어서 상체의 노출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체의 노출은 활동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크리놀린과 버슬은 여성의 섬세한 신체부위인 목선과 어깨, 가슴 등의 상체는 과도하게 노출시켰던 것에 반해 다리는 완전히 은폐시켰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성이 보는 위치라기보다는 '보여지는 위치'라는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수동성과 종속성을 상징한다. 즉 코르셋에 의한 압박과 다리의 활동성을 제거한 크리놀린과 버

슬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더욱이 크리놀린을 착용한 여성은 그 시각적 거대함과 무게로 인해 쉽게 눈에 띄는 존재였기 때문에 신체의 활동성은 상징적·심리적으로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복식은 순종적, 자아도취적, 자학적인 여성을 표현하고, 당시의 여성은 우아한 노예(exquisite slave)였다고 복식학자들은 말한다.

복식은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남녀의 성 역할이 명백히 구분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프-더-숄더 라인, 코르셋, 여러 겹의 페티코트, 크리놀린과 버슬, 넓은 스커트는 우아함, 무위 그리고 복종이라는 당시 여성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통해 남성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장식물로 종속되었다.

## 2) 관능성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남성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교태와 미덕을 발휘해야 했다.<sup>56)</sup> 그러므로 여성은 복식을 통해 관능적인 여성성을 강조해야 했고, 당시 유행했던 복식스타일의 요소들인 코르셋,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은 남성의 시선을 유혹하는 도구가 되었다.

코르셋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데, 가는 허리는 가슴과 엉덩이의 풍만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여성의 성적인 부위를 확연히 구별되게 함으로써 여성의 관능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코르셋은 외적인 측면에서 관능성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와 벗은 상태의 중간 단계임을 상징하는 내적인 측면에서도 관능성을 표현했다.<sup>57)</sup>

크리놀린 스타일은 여성의 몸을 철저히 감싸 신체의 어떤 부위의 노출도 거부하였지만 실제 크리놀린은 흔들리는 풍선처럼 어느 쪽이든 조금 누르면 금방 한쪽이 움직여 스커트가 올라가고 발과 다리를 노출되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노출은 여성의 몸의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남성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흔들리는 크리놀린은 남성을 유혹하는 도구였다.<sup>58)</sup>

버슬 스타일은 꼭 맞는 스커트에 의해 허벅지가 드러나고 돌출된 버슬에 의해 엉덩이를 강조하였다. 엉덩이는 그 크기나 형에 의해서 뿐 아니라 여성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흔들려 더욱 강조되었다.

낭만주의 복식은 극도의 정숙성을 가장한 유혹의 수단이었다. 남성들에게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면서 동시에 여성 자신들은 절제된 미덕으로 감싸여 있기를 바라는 모순된 요구에는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사조의 영향이 컸다. 낭만주의 문학이나 미술은 여성을 보통의 인간이기보다는 천사나 성녀 혹은 악마나 창녀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 중 하나로 간주하는 믿음을 남성들 사이에 유포시켰다. 그 결과 여성의 성에 대해 남성들이 가지는 환상과 두려움이라는 분리된 극단적 추상성이 여성의 의복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sup>59)</sup>

## 3) 모성성

여성의 배란과 출산이 여성성의 본질로 간주됨으로써 여성은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성의 일차적인 정체감으로서 모성개념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으로 강화되었다.<sup>60)</sup>

크리놀린 스타일은 코르셋과 크리놀린을 착용하여 여성의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그리고 커다란 골반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여성미를 극도로 강조한다. 크리놀린은 위스가 유제니 황후의 임신한 몸매를 감추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라는 설과, 빅토리아 여왕의 임신한 몸매를 감추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크리놀린은 짧은 기간 안에 확대되면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크게 유행하였는데, 크리놀린의 유행은 19세기 중반 유럽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남성의 지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남성우위의 시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복식을 통해 명확히 차별화함으로써 강화되었다. 크리놀린에 의한 하복부의 팽창은 여성이 임신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냈다.<sup>61)</sup>

버슬스타일은 버슬패드 혹은 금속틀로 된 버팀대를 착용하여 엉덩이 부위가 돌출되게 함으로써 곡선의 실루엣을 만들고, 리본이나 프릴 등의 장식을 덧붙임으로써 돌출된 여성의 엉덩이를 더욱 강조하였

<표 1>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성과 미적가치

미적가치	조형적 특성	
	종속성	<p><b>로맨틱</b></p> <p><b>'몸' 억압성</b> -팔의 윗부분을 고정시켜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한 오프-더-숄더 라인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착용한 페티코트, 스커트의 크기와 무게</p> <p><b>정형성</b> -데콜테, 버사 칼라 · 펠레린, 지고 · 임베실 · 레그-오브-머튼으로 넓어진 어깨,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 페티코트와 폭 넓어진 스커트에 의한 X실루엣</p> <p><b>부피성</b> -어깨부터 극적으로 부풀려져 커프스 부분에서 좁아지는 형태의 지고 슬리브,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여러 겹의 기교적인 주름장식과 뽀뽀한 천으로 만든 페티코트 8-10개로 부풀린 스커트 -개더나 깊은 박스 플리츠를 잡아 풍성한 실루엣의 스커트</p> <p><b>장식성</b> -엷은 황갈색 · 담황색 · 엷은 다갈색 · 하늘색 · 연보라색 · 밝은 황록색 · 양배추색 · 자주색 · 초코렛색 · 붉은색 · 퓨서색 · 밝은 파란색 등 -오건디 · 모슬린 · 타라탄 · 케임브릭 · 폴라드 · 셸리스 · 캐시미어 · 포드스 · 새틴 · 나폴리제 그로그렝과 줄무늬와 바둑무늬의 태피터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사로 짠 얇은 소재 -꽃 · 리본 · 브레이드 · 레이스 · 스모킹 · 셔링 · 루시 · 턱 · 러플 · 플라운스 · 플레어 · 플리츠 · 오버랩핑 · 애플리케 · 자수</p>
관능성	<p><b>크리놀린</b></p> <p><b>'몸' 억압성</b>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착용한 페티코트, 크리놀린의 크기와 무게</p> <p><b>정형성</b>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 크리놀린과 폭 넓어진 스커트에 의한 X실루엣</p> <p><b>부피성</b> -높은 허리선을 강조하고 크리놀린에 의해 극단적으로 폭이 넓어진 스커트</p> <p><b>장식성</b> -담홍색과 같은 적자주색 계열들 -디머티 · 룬 · 챔브레이 · 김영 · 친츠 · 핀케 · 일랜드제 포플린 · 냉킨 · 캐시미어 · 메리노 · 셸리스 · 플라넬 · 폴라드 · 태피터 · 브로케이드 · 벨벳 · 모헤어 · 바라타 · 고즈 · 모슬린 · 바레쥬 · 그레너딘 · 웰르 -러플 · 태슬 · 프린지 · 브레이드 · 리본 · 레이스 · 자수 -붉은색, 검정색, 노란색, 회색에 무늬가 있는 리넨, 실크, 울,카튼 페티코트</p>	
	<p><b>무성성</b></p> <p><b>버슬</b></p> <p><b>'몸' 억압성</b>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착용한 페티코트, 버슬의 크기와 무게</p> <p><b>정형성</b>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 앞모습은 다리에 일자형으로 밀착되고 뒷모습은 버슬에 의해 돌출되고 길게 늘어진 스커트에 의한 h실루엣</p> <p><b>부피성</b> -버슬에 의해 엉덩이를 부풀린 스커트</p> <p><b>장식성</b> -헝거치프 린넨 · 아일릿 자수 · 문양이 있는 짙고 화려한 색상의 벨벳 · 새틴 · 파유 · 브로케이드 -스모킹 · 셔링 · 플라운스 · 태슬 · 프린지 · 브레이드 · 레이스 · 자수 -언더스커트와 오버스커트의 색상과 소재대비</p>	

다. 스미스(Bonnie Smith)<sup>62)</sup>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가슴과 배가 이루는 구형을 여성의 본질적인 생식의 원형(reproductive contours)으로 보고, 1870~80년대 하이 웨이스트의 버슬 스타일은 그러한 구형이 뒤로 물러난 형태라고 설명한다. 즉, 버슬 스타일은 모성에 대한 숭배로 인해 자궁의 완전성을 숭배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임신했을 때 커진 자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것은 버슬이 엉덩이의 강조를 통해 생식능력이라는 여성의 일차적인 사회적 역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의 역사적 양식으로서의 개념을 넘어 현대패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식양식으로 낭만주의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각각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가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은 ‘몸’억압성, 정형성, 부피성, 장식성이다. ‘몸’억압성은 오프-더-숄더 라인, 코르셋과 페티코트, 크리놀린, 버슬의 크기와 무게 등에서, 정형성은 X실루엣과 h실루엣에서, 부피성은 소매, 스커트, 페티코트, 크리놀린, 버슬 등에서, 장식성은 소재, 디테일과 트리밍, 색상과 문양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페티코트, 언더스커트와 오버스커트의 색상과 소재대비 등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미적가치는 종속성, 관능성, 모성성으로, 여성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 여성의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고 강조함으로써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 여성의 임신과 자궁을 은유함으로써 여성의 출산능력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시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여성성을 반영하는 미적가치이다. 이러한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는 과거로의 회귀, 다위니즘의 출현, 부르주아 계급의 대두, 기술의 변화 등과 같은 19세기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 또한 디자이너의 의지를 포함한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 등과 같은 현대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기 위함이다. 또한 19세기 사회와 현대 사회의 달라진 여러 조건들에 의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추구하는 달라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되어 본래의 양식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양식으로 창조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낭만주의 복식양식이 현대패션에서 현대 사회의 여러 조건들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복식양식의 변화로써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구태경(1983), “낭만시대 복식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미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금자(1991), “낭만주의 시대의 조형예술 양식과 남녀복식의 특성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2007),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시시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형주(2005), “현대 트렌드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2007), “로맨틱 복식양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2006), “1990년대 이후 남성패션에 표현된 로맨틱시시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선·채선미(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시시즘 경향”, *복식*, 45.
- 윤점순(1982), “서구의 낭만주의 복식에 대한

-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2003),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효진(1997), “현대패션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
- 장현숙(1998),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로맨틱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말희(2007),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특성과 시각적 평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윤을요(2005), “리즘적 체계와 합목적상에 기초한 체형별 원형 패턴”,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6.
  - 3) Douglas A. Russell은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된 1815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혁명이 일어난 1848년까지(*Costume History and Style*, Cassel & Co, 1983, pp. 327-345.), Blanche Payne은 복식의 실루엣의 변화가 보이는 1820년부터 1850년까지(*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p.488-507.), J. Anderson Black과 M. Garland는 1815년부터 1850년까지(*A history of fashion*, William Morrow & Co, 1875, pp. 242-261.), Marybelle S. Bigelow는 크리놀린 스타일을 포함한 1816년부터 1870년까지(*Fashion in History -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0, pp.181-206.), Michzel & Ariane Batterberry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말까지(*Fashion*, Columbus Books, 1977, pp.192-263.), Lorenz Einer는 1750년부터 1850년까지(*Neoclassicism and Romanticism 1750-1850*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Artinc., 1970, pp.156-157.), Stella Blum은 1835년부터 1895년까지(*Evolution of Fashion 1835-1895*, Kyoto: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1980, pp.13-16.)를 낭만주의 복식양식 시기라 한다.
  - 4) 정흥숙(2004), *서양 복식 문화사*, 교문사, pp.298-299.
  - 5) Alice Mackrell(2005),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on Fashion and Fashion on Art*, Londin: Batsford, p.76.
  - 6) 신주영(2007),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와 시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0.
  - 7) Rosemary Jann(1994), “Darwin and Anthropologists: Sexual Selection and Its Discontents”, *Victorian Studies, Winter*, pp.294-296.
  - 8) 김정선(1996),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 복식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9.
  - 9) John Tosh(1994),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ection on the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pp.185-187.
  - 10) 김정선, op. cit., p.21.
  - 11) 고현진(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2.
  - 12) Eduard Fuchs (2001), *풍속의 역사 IV*, 이기웅 · 박종만(역), 까치, pp.3-4.
  - 13) 이민선(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1.
  - 14) Thorstein Veblen (1995), *한가한 우리들*, 이완재 · 최세양(역), 서울: 동인, p.179.
  - 15) 박길순(1990) “산업혁명이 복식에 미친 영향”, *충남생활과학연구지*, 3(1), p.40.
  - 16) 정흥숙, op. cit. p.311.
  - 17) Blanche Payne (1997),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역), 서울: 까치, p.586.
  - 18) 정흥숙, op. cit. pp.330-331.
  - 19) Blanche Payne, op. cit., p.575.
  - 20) 정흥숙, op. cit. pp.319-334.
  - 21)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0-76.
  - 22) C. Willett Cunnington · Phillis Cunnington

- (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lications, p.95.
- 23) Jennifer Craik(2001), *패션의 얼굴*, 정인희 외 (역), 푸른솔, p.229.
- 24) 최현숙, op. cit., p.70.
- 25) Blanche Payne, op. cit., p.586.
- 26) François Boucher (1995),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376.
- 27) Elizabeth Ewing (1989), *Everyday Dress 1650-1900*, Chelsea House, p.134.
- 28) Blanche Payne, op. cit., p.605.
- 29) 정흥숙, op. cit., p.303.
- 30)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수학사, p.246.
- 31) François Boucher(199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 Hudson, p.362.
- 32) James Laver(1988), *복식과 패션*, 이경희(역), 경춘사, p.198.
- 33) Blanche Payne, op. cit., pp.598-600.
- 34) Akiko Fukai(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I)*, Köln: Taschen, p.245.
- 35) Blanche Payne, op. cit., p.573.
- 36) Harold Koda(2001), *Extreme Beauty*,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35.
- 37) 백영자·유효순(1998),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p.288.
- 38) 신상옥, op. cit., p.260.
- 39) 김정선, op. cit., p.175.
- 40) James Laver, op. cit., pp.206-208.
- 41) 백영자·유효순, op. cit., p.277.
- 42) Blanche Payne, op. cit., pp.571-573.
- 43) 백영자·유효순, op. cit., p.273.
- 44) Blanche Payne, op. cit., p.587.
- 45) 백영자·유효순, op. cit., pp.286-287.
- 46) Blanche Payne, op. cit., p.587.
- 47) 정흥숙, op. cit., p.316.
- 48) 백영자·유효순, op. cit., pp.289-290.
- 49) 신상옥, op. cit., pp.271-272.
- 50) Blanche Payne, op. cit., pp.606-608.
- 51) James Laver, op. cit., pp.179-180
- 52) 신주영, op. cit., p.155.
- 53) Akiko Fukai, op. cit. p.152.
- 54) Thorstein Veblen, op. cit., p.179.
- 55) 김정선, op. cit., p.42.
- 56) Valerie Steele(1985),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02.
- 57) 신주영, op. cit., p.154.
- 58) James Laver, op. cit., p.194.
- 59) Jennifer Craik, op. cit., p.123.
- 60) 김정선, op. cit., p.21.
- 61) James Laver, op. cit., pp.193-194.
- 62) Valerie Steele, op. cit., p.95.에서 Bonnie G. Smith(1981), *Ladies of the Leisure Class: The Bourgeoises of Northern France in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78의 내용을 재인용.

접수일(2009년 10월 14일)

수정일(1차 : 2009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16일)